

제
9
호

춘천시신문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256-1260-1 FAX(0361)257-1260

가정의 달을 맞은 크리스찬

정부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정이란 우리 사회의 기초 단위이며 가장 튼튼한 초석이다. 이러한 가정이 병들면 사회가 병들고 흔들리게 된다. 근래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써 최초 에덴동산에 두셨으며 말씀의 법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사람의 생각대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

혼을 지켜야 가능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가혼을 범하므로 에덴의 행복한 가정은 무너지고 만 것이다.

세인들은 저마다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가정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정하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자녀들이 너희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

라. 아버지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1-4)는 등 어른들과 아이들이 주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며 교훈하라고 하였다.

크리스찬들은 내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경해야 할 것이다. 내 부모 내 자식에게만 국한시킨다면 유교적인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시내 모든 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에서 야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정의 달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중앙장로교회(사공정 목사)는 5월 4~5일 춘천수렵장에서 전교인 가족캠프 시간을 가졌으며 순복음세일교회(하기철 목사)는 5월5일 추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인 1일 운동회를 열고 기쁨을 나누었고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 목사)는 5월9일 오후3시부터 전교인 큰잔치 찬양대회를 어린이 회관 야외무대에서 가졌으며 평화감리교회(한균 목사)는 5월5일 중도 야영장에서 전교인 야외 예배와 각종 게임으로 결속을 다지고 5월17일 노인들을 모시고 일동 온천장으로 경로잔치 여행을 다녀왔다.



▲ 춘천수렵장에서 캠프파이어 점화하는 모습 (중앙장로교회 사공정목사)



▲ 어버이주일 카네이션 달아주는 모습



▲ 중앙감리교회 전교인 찬양큰잔치 모습



▲ 캠프파이어 중 세족식을 하는 사공정 목사



이 명 일 장로
성시신문 고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된 축복받은 성도와 춘천을 아끼는 유지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시청광장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는 생활을 통하여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사오니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싸 주심으로 사탄과 싸워 승리의 신앙인으로 거듭나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구복 하였으니 하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구촌 중앙에 자리잡게 하시고 사탄 주관 육천년 역사의 최후보루를 이복땅에 미물케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소명으로 알고 준행하는 복된 백성을 남한에 존립케 하시니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실현하실때 들어쓰실 민족과 국가가 크고 제일 큰 백성의 나라로 기록하신 대한민국이

아니겠는지요. 1972년 하나님께서 이나라를 공중이 여기사 가난의 굴레를 벗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주시던해에 우리 춘천에 성시화운동의 불을 당겨 주셨으며 한국이 세계의 중앙에 있게 하심과 같이 춘천을 이나라 중심부에 자리잡게 하셨음은 우연한 일만이 아니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된 영안을 밝히 뜨고 은혜의 귀를 기울이면 삼라만상이 소생의 기지개를 펴는것이 봄의 시냇가에서 시작함을 감지할때 이로 춘천을 거룩하고 영광된 도성으로 예칭하신 하나님의 섭리온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우리모두는 멀쳐 일어나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는 주님의 일꾼되기를 갈망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말로 이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성직자 모두는 세상만사를 뒤로 접어두고 모듬지기 하나님의 섭리역정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키위하여 전심전력 할때이며 장로로 택함받은 모두는 목자로 하여금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되여 천로역정에 헌신할 수 있도록 뜻과 정성을 모두어 기도예 몸바치게 하시며 성도들의 인도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

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재림의 때를 맞아 천년왕국의 소망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주님의 십자가의 수난을 죄없는 빌라도에게 떠넘기지말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음을 상기하면서 (마태16:21, 17:23, 20:18-19, 마가8:31, 9:31, 10:33-34, 누가22:24) 성경의 말씀대로 제사장장 장로의 죄로 통해 자복함으로 공의로운 기도자가 되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실현하시도록 하여 한국이 통일되는 은혜와 세계가 형제애로 평화를 구가하는 천년왕국이 이룩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릴때 이모든 말씀을 부활 승천하시여 하나님 우편에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구절을 읽으세요)

주님의 재림과 춘천도성

이명일 장로의 간절한 기도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양식

“함께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7~8)

이 말씀을 보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여호와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소서.” 할때에 “알았다.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여 내고...” 약속인 것입니다.

‘피터’ 목사님은 오늘날 교인을 보면 약 10%가 진짜 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10%의 교인을 가지고 모든 선교활동을 해 나가게 되는데 성시화기도모임 회원들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10%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찾고 부르짖었을 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 기도모임을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노예 해방을 외친 링컨에게 각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노예해방 선언에 대한 투쟁을 수료하지 아니하면 당신과 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고 사표를 내려는 각료들에게 링컨은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그날 밤 기도실에서 링컨은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는 노예와 자유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날, 각료들이 어떻게 대답하나 하고 모였습니다. 링컨은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각료

들이여, 분명히 우리 선조들은 이 땅에 믿음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서하며 이 땅을 지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인간의 욕심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고 노예해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춘천시성시화라는 큰 타이틀에 몸을 던져서 기도모임을 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링컨과 같은 피를 토하는 기도가 그 나라를 지금 현재의 나라로 변화시킨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런 피도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에 목표를 가지느냐 말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서 허무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치권을 이용하여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도 합리화 시켜온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창조주께서 주신 통치권을 성시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김 준 언 목사 (성시신문 운영위원/춘천시
시화 기도모임, 설교요약)

“성공목회 전략”



유진형 목사
남춘천감리교회 / 성시신문지도위원

남춘천감리교회는 1922년 7월, 여덟칸 초가집에서 시작하였으며 일제시대에 강제로 문을 닫았고 6.25동란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으로 시대적인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어 오늘의 승리하는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의 당당한 모습으로 춘천지역 복음화 성시화의 중역이 되었다.

유목사님은 1989년 5월에 부임한 이래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과 말씀, 전도사역에 심혈을 쏟았으며 모든 성도들이 그의 목회전략에 순종하고 협력한 결과 10여명의 새벽기도 참석자가 수백명으로 증가하였고 27속(구역)에서 115속으로 3백명의 출석 교인수가 9백명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먼저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으로 새벽부흥회를 시작하였다는 유목사님은 “기도와 말씀 양대축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을 벌이면 교회는 성장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말씀과 기도주려하자, 교회는 번

화되기 시작하였고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졌으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전도를 위하여 전도전략을 세우고 춘천에서 개최되는 제43기 이슬비전도학교에서 5명의 성도와 함께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교육을 통하여 전도자를 양육하고 있다.

현재 20개 전도팀, 115명의 양육팀, 10개 심방팀이 이슬비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춘천지역 이슬비전도학교의 모델교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1993년 11월부터 이슬비전도학교 교육이수자들로 특공대를 조직하여 이슬비 전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도실시 1년만에 청장년 교회출석자가 4백명에서 6백명이 되었고 98년도에는 8백명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주일낮예배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밤예배는 마치 축제처럼 찬양으로 소리높히 흥겨웁게 드린다.

예배전 울동팀과 오병이어팀의 반주로 찬양하고 찬송가마다 유목사님이 그 의미를 설명하여 은혜와 감동을 더하게 한다.

유목사님은 춘천을 복음화 성시화하기 위하여 기도과 말씀 성령운동에 역점을 두고 전교인 전도요원화로 구체적인 전략전도를 꾸준히 추진하며 성장가도를 역주하는 모델교회로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FULL GOSPEL CHEIL CHURCH



담임목사 : 하 기 철
(성시신문 지도위원)

- ◆ 전도사 : 김 창 윤
- ◆ 안수집사 : 김봉옥, 임승하, 조중산
- ◆ 성가대장 : 김 봉 옥
- ◆ 지 휘 자 : 김 은 아
- ◆ 반 주 : 연은미, 고유나, 윤이레

춘천시 효자1동 591-45(☎ 257-3511~3)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부흥성회

「주제 : 예수를 만난 사람들」

- 기간 : 99년 5월 30일(주)
오후 7:30분 부터 6월 2일(수) 오후까지
- 장소 : 춘천순복음교회 만천별엘성전
(만천리 경찰기동대와 인접)
- 강사 : 강 풍 일 목사(구로제일교회)

- 주최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회장 차 덕 수 목사

- 협찬 : 춘천시성시신문사



-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교회 다니신 분께는
염가제공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천 일 현 수 막

위치 : 효자1동 660-8(순복음춘천교회 맞은편 유통위)
상담문의 TEL 255-5722 FAX 256-5722

대표 천 일 안수집사

기독교계 뉴스

춘천장로교 연합대회

- 100여개교회 전교인대상 -

춘천지역 장로교 연합회장(임신영 목사)은 장로교회 일치운동으로 수년 전부터 연합 예배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00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는 연합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대회장 박상호 목사는 오는 5월22일 오전9시30분 춘천농공고 운동장(사우동)에서 예배와 걷기 대회, 어린이 달리기, 사생대회, 중고등부 축구, 청장년 축구, 노인 축구, 배구, 피구, 이어달리기 등 경기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걷기 대회와 기타 수입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돕기로 하였다. 이날 "아나바다 장터" 운

영은 각교회 여전도회장(총책임, 제일교회)들이 맡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회장 박상호 목사(제일교회) 부대 회장 김유식 목사(한신교회) 예배 위원장 사공정 목사(중앙교회), 체육위원장 김기선 장로(성광교회) 걷기대회장 김홍규 장로(동부교회) 경로잔치장, 사생대회장 김정희 장로(동부교회) 준비위원장 장병섭 장로(동부교회)가 맡았다.

춘천의 장로교회가 진정으로 연합되고 하나의 교회로 발전하여 모든 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도시의 복음화 성시화를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국 남선교 연합회장 취임



이 기 종 장로
신촌감리교회

기독교대한 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25차 정기총회가 4월29일 오후3시 서울광림교회 뎀셀성전에서 대의원 553명이 모여 개최되었으며 동부연회에서 입후보한 원주 신촌감리교회 이기종(李起鍾) 장로님이 249표를 얻어 제 2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장로님은 서강원 새마을 유아원을 운영하며 78년 신촌감리교회를 개척 설립하였고 감리교 본부사회 평신도국 위원, 동부연회 기독교산업인회장, 원주 YMCA 총무, 민족통일 강원도협의회 운영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동부연회 장로회장 이·취임식

4월27일 오전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당에서 동부연회장로회 모임을 갖고 회장 이·취임식과 임원조직을 발표하고 공로 및 축하패전달,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회기인수인제가 있었다.

취임회장 유태희 장로(춘천제일교회), 이임회장 정계향 장로(횡성교회)

이며 부회장은 선우영(속초) 김기태(춘천중앙) 한주석(광장) 박영식(강릉) 차명순(원주제일) 심재철(철원) 김형규(동해) 전호인(영월중앙) 안봉희(원주) 김창국(인제) 총무 심인섭, 서기 김용경, 회계 백기만, 그리고 각 부장 및 차장을 선임하였다.

대전성시화운동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조남진 장로 -



조 남 진 장로

대전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본부창립 후 첫번째 성시세미나를 6월1일 오후7시 한남대, 대학교에서 개최계획이며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조남진 장로)의 주제발표와 6명의 패널들의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세미나를 통하여 성시화 열기가 대전시 전역에 확산될 것이다.

제2회 교경친선 체육대회

춘천경찰서 교경(教警)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15일 춘천종합운동장에서 축구와 테니스 친선경기를 통하여 경찰과 교회간의 협력을 증진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차덕수 목사와 경목회원 30명 전수산 서장의 경찰공무원 35명으로 시종일관 화기에 넘치는 친선체육대회가 되었다.

경목회장 차덕수 목사는 시편 133:1~3 메시지에서 춘천의 치안을 담당한 경찰과 목사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도시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 진리 안에서 교경이 연합하자고 하였다.



제2기 춘천중보기도학교 오픈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전문기도일꾼의 훈련 목적으로 개설한 중보기도학교가 지난 2월4일~4월29일까지(12주, 매주 1회 교육) 25명의 교육을 마

치고 제2기 교육을 5월13일 오후7시 30분 World vision 2층 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권하고 있다.



“기독교세계” 편집위원 김기태 장로

감리교단 본부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세계(The Christian World)는 4월 통권 832호를 발행한 잡지로써 교회의 유능한 편집위원들에 의해 출판되고 있으며 총회에서는 4월3일 2년 임

기의 편집위원 11명(목사 8, 장로 3)을 선정 위촉하였는데 김기태 장로(춘천중앙교회)님이 장로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5사단 군선교 위한 예배

제일장로교회(박상호 목사)는 5월 30일 오후3시 15사단 군중참모 김영길 소령을 강사로 모시고 창립 60주년

기념군선교를 위한 예배를 드릴 계획이며 이날 드린 헌금은 15사단 군인교회 건축에 쓰여진다.

60년만의 연합예배

제일교회(박상호 목사)와 동부교회(임신영 목사)는 60년전 한 교회로 시작하여 각각 다른 교회로 성장하고 있으며 창립 60주년을 맞아 형제교회임을 자각하고 양교회의 당회에서 연합

으로 함께 예배할 것을 결정한 후 5월 16일 오후3시 제일교회당에서 임신영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연합예배를 드렸다.

380이북 53교회 통일까지 재건 준비

북한교회재건 남한교회지정 현판

공산정권에 의해 허물어진 북한지역 감리교회 재건을 위하여 대한감리회는 산하에 서부연합회를 설치하고 남한교회가 1개교회씩을 담당이북교회 간판을 달고 기도도 물질로 재건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강원 남지방 황선용 감리사는 98년 4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각 지방별로 북한 선교세미나를 가졌고 98년 9월6일 연합선교대회(춘천석사감리교회)를 열었으며 98년 10월18일 신성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현판식 예배를 드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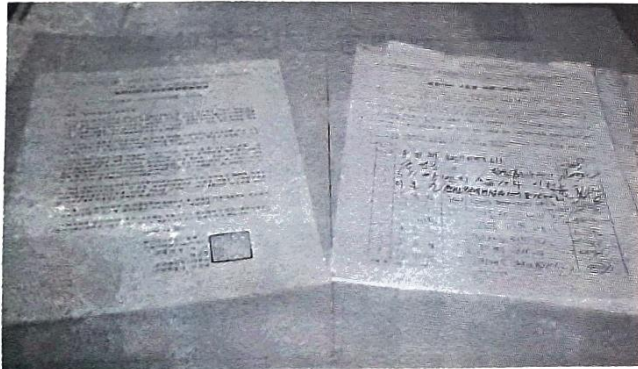
있다.

지난 4월16일 춘천석사교회의 세성전에서 강원남지방 목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예배와 현판식을 거행하였으며 현판식 사진은 이북 강원도 회양군 회양읍 읍내리 561번지 소재 "회양교회" 간판을 석사교회 전면에 달고 있는 모습이다. 모든 교회는 이북에 쓰러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탈북난민보호 UN 청원서명운동에 동참을

1차 5월12일, 2차 5월27일, 1천만 크리스찬 대상



▲ 남춘천감리교회의 서명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북한난민 보호 UN 청원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원운동추진 위원회(공동의장 : 지덕희장, 정진경 명예회장, 위원장 이종운, 교회발전위원장)와 청원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 장로)를 구성하고 4월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발대식을 가졌으며 모든 교회가 1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교회별로 서명날인 서식을 배포하였다.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춘천기독교 연합회(김광국 회장)는 각 교회에 공문과 서식을 보내고 청원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수십만명의 북한동포들은 강제 송환시 참혹한 처형과 강제수용 등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사의 위협과 제도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고 있다. 이제 1200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태임을 인식하고 모두가 UN청원서명운동에 참가하여 탈북난민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춘천지역 모든 교회는 서명 날인한 결과를 5월27일까지 춘천시사회운동본부 사무국으로 보내면 취합하여 UN청원운동본부로 보내게 된다.

춘천북지방 초대감리사 취임

- 한균 목사, 평화교회 -

기독교대한 감리회 동부연합회는 춘천북지방을 새로 만들고 초대감리사에 한균 목사(평화교회)를선출하였으며 4월20일 초대감리사 취임

예배를 드리고 동부연합회 감독으로 부터 북지방기를 받았다.



성시신문 후원단체 등록

- 교육자 World Vision 춘천효자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춘천성시화의 열망을 가지고 후원단체로 등록 매월 재정적인 지원으로 춘천성시신문 발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방주장로교회(박명자 강도사)는 성시화사역을 위하여 발행되고 있는 춘천성시신문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월 후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국제선교 세미나 개최

국제선교훈련원에서는 6월 3일, 10일, 17일, 24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까지 "세계선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라는 주제로 춘천의 기독교장인, 평신도, 대학생에게 세계선교의 필요성과 참여방법, 지역교회와의 협력방안 모색 등을 제시합니다.

- 근대 세계선교의 역사와 현황 - 김형의 목사
- 선교의 성경적 기초와 전략 - 한정국 선교사
- 21C 전문인 선교의 전망과 전략 - 김요한 선교사
- 21C 지역교회의 선교 참여방안 - 우동수 선교사
- 차량운행 : 12인승, 중대형 BUS 5대, 향교회관앞 (오후6:15부터 7시까지 10분마다 출발)

기독교문화



김 명 숙 작가

- 경희 대학교 미술 교육과 졸업
- 교원 미진 (은상, 80년, 82년)
- 강원 미술 대전 (임선, 80년, 82년)
- 나 해 석 여성 미술 대전 (임선, 99년)
- 개인전 1회 (97년), 각종 단체전 및 초대전
- 한국 미술협회전 (96년~98년) 및 한
- 일 교류전 (96, 97년)
- 한·중 교류전 (98년)
- 강원 미술대전 초대 작가, 춘천 미협 부지부장,
- 춘천 여류 작가 회장(현재)
- 200-170 김원도 춘천시 퇴계동 한주 APT 101동 1403호
- ☎ (0361)262-4550

90세에 회고록 펴낸 임정묵 목사

4월 24일 12시 춘천성광교회(김광국 목사)에서 임정묵 원로 목사님의 90년 인생 회고록 출판 감사예배가 있었다. 임 목사님은 현재 동부장로교회 임신영 담임목사의 부친이시다.

“예수께 붙잡혀 살아온 삶”이란 회고록은 임 목사님의 목회역사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와 목회자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분은 50평생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한자를 돌보는 일에 역점을 두었으며 교회를 개혁하거나 다 쓰러져가는 20여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온 생을 다하셨다. 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권하고 싶다.

“밤이 되면 별이 보인다”
책 펴낸 곽철영 목사

곽철영 목사님은 은퇴 후에도 말씀사역과 집필 활동을 통하여 후배교역자와 성도들에게 지난 48년간의 신앙경험과 지식을 물려주고자 힘쓰고 있으며 금번 ‘밤이 되면 별이 보인다’는 주옥같은 책을 출간하셨다. 우리 모두 한 권씩 읽고 목사님의 믿음과 열정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곽 목사님은 본지의 고문으로 계시며, ‘원로목사교회’ 예배 설교를 담당(YMCA 소양로 회관)하고, 24장로회 지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신다.



QT교재 (JDM)▶

목회자를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조 덕 웅 목사

조덕웅목사(예장총회 정보통신선교회)는 잠시 중단한 바 있는 컴퓨터 무료교육을 재개하였으며, 모든 목회자와 사모, 선교단체사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 교육기간 : 초급반(2주), 중급반(2주) 고급반(2주), 인터넷반(예정)

• 신청전화 : ☎ (0361)252-2006
FAX 252-2007

QT 교재 끝방말씀 창간

예수제자운동(JDM) 부설 목자와 제자사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영적 사람들을 위한 한·영 혼합판 QT교재를 발간하고 교회와 직장 대학 등 그룹 성경공부 교재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 권당 3,000원 (2개월용)
- 1년 구독 : 15,000원
- 연락처 (02) 2281~2948
(0361)243~8669, 6701
FAX 243~6705

청소년을 위한 '99 성령대축제

웅기장이 Live Concert. 정태성, 김태환 찬조출연

5월 22일 (토) 오후 6시 청소년 '99 성령대축제가 “날 빚으소서!” 라는 컷치 프레이즈 아래 자연 속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새롭게 단장된 순복음 춘천교회 만천 벨엘성전에서 펼쳐진다. 은혜 받고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만천벨엘성전은 순복음춘천교회의 제2성전으로 초교파적인 모든 행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시설이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본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는 나실인, 달리다굼, 로베스, 마하나임, 브니엘, 생

명의 소리, 에브라임, 엘리에셀, 엘리사, 요한나, 작은말알, 한울, H.ccc, 헵시바, Holy Kids(찬양인도) 순복음교회 학생회 청년회 (주관), 지도교사 전희중

- 장 소 : 만천리 입구에서 외곽도로 방향 중간지점 (교량다음 용왕성 앞 우회전)

- 차량운행 : 팔호광장 순복음교회 앞에서 5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출발.

웅기장이 Live Concert



시민광장 시민과 함께

직장선교의

무의탁 노인들의 안식처 "베다니고을"

"베다니 고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한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이다.

강원침례교회 차덕수 목사 부부는 1986년 교회를 개척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고 터미널과 역전에서 걸인들을 모아 돕는 일을 시작하였으며 교회의 모든 헌금에서 10분의 1을 배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타운이다.

경기도 가평중학교에 근무하던 사모님은 "베다니 고을"에 전담하기 위해 사 전 퇴직하여 수용자들을 돌보고 있다.

현재 "베다니 고을"은 방 4개와 욕실을 갖추고 있으며 중풍으로 세 번 쓰러

져 거동이 불편한 장익진 목사(68세) 사모 (58세)와 골다공증으로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한 권춘자(56세) 할머니를 보살피고 있으며 또다른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찾고 있다.

그러나 "베다니 고을"을 운영하기에는 일손도 부족하지만 재정도 부족한 실정으로 뜻이 있는 사람들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모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또한 춘천시행의 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중고핸드폰으로 소년소녀가장 돕기

한국복지재단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만복 관장)은 소년소녀가장돕기위한 중고 핸드폰 모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수집된 중고 핸드폰과 폐 배터리를 제3국에 수출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돕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산업폐기물을 감소시키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수집기간 : 1999년 4월 1일 ~

1999년 6월 30일

- 수거품목 : 휴대폰(pcs 포함) 폐배터리, 충전기, 호출기(삐삐 등)
- 방법 : 교회, 단체, 개인별로, 기증받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 제출(춘천시 후평3동 899번지 ☎ (0361)242-0051~3, 257-6690)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선물 증정

독거노인을 위한 바자회

중앙성결교회 여전도연합회(회장 이경자 권사)는 4월 26일~27일 교회

앞뜰에서 바자회를 열고 수입전액을 독거노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직장선교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김영명 회장)는 4월 17일 오후 2시 방주장으로 교회당에서 43개 직장대표자들이 모여 제10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선교활동사항 및 재정보고(박재복 총무)를 하였으며 회칙은 자구수정으로 개정은 없었다.

총회 임원 선거에서 현수석부회장이영규 장로의 결격사항이 없어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신임수석 부회장은 김용배 장로(도 교육 위원회) 부회장 민경옥 장로(농협강원지역본부) 민병업 장로(춘천시청) 박상

운 장로(우체국) 감사는 박무일 장로(강원도청) 한성옥 집사(도지방 경찰청)가 선출되었고 총무 등 임역원은 신임 회장단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날 예배에서 조충환 직장선교회 지도목사는 여호수아 1장 1절~4절 말씀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명 받은 여호수아와 같이 부여 받은 직장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모세의 양말을 들어올리는 아론과 훌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춘천직연 창립10주년 예배 및 선교대회

-6월 3일 오후 6시30분 석사감리교회당-

이영규 장로(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장)는 6월 3일 오후 6:30 석사감리교회 새성전에서 연합회 창립 10주년을 감사하는 예배와 직장복음화의 열기발산을 위한 선교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모든 직장 기독교인들과 각교회

성도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춘천성시화 기도모임(대표 이학규 장로)회원들은 연합회의 선교대회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하였다 이날 전국연합회장 구자연 장로의 특강이 있다.

기사선교회 창립9주년 감사예배



이수열 회장

춘천운전기사 선교회(회장 이수열 집사)는 5월 12일 오전 10:30 온누리 교회당에서 창립 9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열었으며 중식후 춘천시 삼천동 고수부지에서 강원연합회(춘천, 원주, 속초) 회원 가족친선체육대회를 갖고 체력 강화와 선교 열기를 증진시켰다.

이날 전국 연합회 박성신 총회장, 총무, 체육선교부장과 강원연합회장, 각지회장 회원 가족 100여명이 참석하여 달리는 교회 선교목회자들의 사명을 재다짐 하였다. 강원연합회 총회에서는 정명수 회원을 연합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가정의 달 노인정 효도관광

춘천동원감리교회(정상문 목사)는 5월 13일 자매결연을 맺은 노곡노인정과 육림노인정 소속 노인 190명을

초청하여 용인 에버랜드로 효도관광을 하므로 지역 노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우리의 꿈 우리의 시명 춘천성시와

특별칼럼

산딸나무 십자가의 은혜

- 200개의 십자가에 복음을 실었다 -



한겨울 설한풍에 시린 앙상했던 나무가지들은 어느새 그 아픔을 잊고 초록빛 새 잎새로 단장한 그 현란한 모습에 한동안 마음을 빼앗긴 나였지만 정된 한모퉁이에 조용히 6월의 하얀 십자가 꽃망울을 머금고 있는 산딸나무는 또 하나의 나를 깨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산딸나무와 내가 만나게 된것은 1993년 5월 한국 임업시험장에서 발표한 「산딸나무」(학명: CORNUS COUSA BUEG)란 글에서 예수님께서 산딸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내용을 읽고 곧 바로 천장산 공원에 산딸나무 3그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즉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산딸나무가지를 잘라 크고 작게 십자가 100개를 만들었고, 그후 97년까지 100개를 더 만들어 질병으로 고통 받는자를 위해 병원이나 가정 방문하여 산딸나무 십자가를 선물하고 기도사항을 예수님과 산딸나무와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주님을 영접할 것을 권면하였고, 또한 직장내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동료 그리고 친지들에게 산딸나무 십자가를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에서 고침을 받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는자에게는 뜨거운 믿음을 갖게되는등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수없이 외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후 저에게도 감당키 어려운 이동통제 단장이라는 특수 임무가 부여되어 이제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과 첨단장비를 업무의 중단없이 크리리에 옮겨야 하는 이동작전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새벽 3시 30분에 천장산에 올라가 양산을 높이들고 우리 주님께 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산딸나무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감당키 어려우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것을 할수 있다고 하신(빌4:13) 말씀을 믿고 약할때 강하다고 하고 할수없을 때 할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수십명의 단원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수 많은 동역자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동작전은 시작되어 하루밤에 수 백대씩 새벽 4시에 출발, BMNT(박명초) 30분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하는 야간작전이 수주일간 계속 되었는데 우리단원 모두는 매일 아침 출발전에 산딸나무 십자가를 손에쥐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

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건의 사고도 없이 완벽한 이동작전이 완료되어 뒤편 어른에게 보고를 드리지 계획과 실시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 졌다고 극찬하면서 장군 출신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육군병장으로 재대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대단히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번 작전은 저가 진두지휘 한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 감독하신 것 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무실로 돌아온 나는 산딸나무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께 눈물의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동작전임무가 끝난지 3개월만에 나의 고향 강원도 춘천으로 영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생각해도 나의 객관적인 경력이나 제반 여건을 볼때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춘천성시화운동에 동참하고 산딸나무 십자가로 춘천을 복음화 하는데 나의 마음과 몸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춘천에 부임과 동시, 다락방 기도모임에 참여하였고, 산딸나무 십자가를 다락방에 걸은이후, 많은 신앙적 선배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시화 운동모임에 적극 참여하면서 십자가를 선물하는 복음전파에 진력하였고 특히 산딸나무 십자가를 통해 맺어진 양인평 장로님 그리고 전용태 장로님과 인연으로 저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춘천시 배계설 시장님은 산딸나무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춘천시에 성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산딸나무를 수십그루 심었습니다. 한편 춘천에서 근무한 2년동안 교회간증과 특강 그리고 기도 모임등 100여회에 걸쳐 일반영명에 대해 놀라운 구국의 십자가를 증거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춘천에서 떠나 저에게 과분한 직책인 총무실장, 그리고 대학원장직을 계속 허락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형을 보는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적은것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고가표에 반영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 자신의 향후 신앙생활 방향을 다음과 같은 3가지에 역점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임마누엘), 모든 것을 준비해주시며(여호와 이레),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에베소서, 여호와와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겠고, 또한 주님께서 세상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임」(마 10:32)라고하신 그 크신 사랑을 믿어야겠으며, 현실적으로 당치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나의 죄값이 아니고 정금같이 단련하여 크게 사용키위한 주님의 온사임을 확실히 믿고 순종해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둘째,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 즉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먼저 나를 비려야 하겠고, 그리고 길으로는 종교적 경건을 가장하고 안으로는 세속적인 외식(外飾)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자신을 길그릇처럼 깨어 버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헌신적인 실천과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결실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것은 하나님의 뜻에따라 계절을 초월하여 열매를 맺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작던 크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리고 돌보는것은 나의 몫이며 자라게하는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지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이신 나눔의 기적을 알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즉 우리들 235 방사성 동위원소가 나누어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원자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과 물질과 봉사과 희생으로 우리 이웃에 나누어 줌으로서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셋째, 깨어있자.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나를 온 세상의 중심에 두고, 육안으로 세상을 보고 교만해있지는 않은지? 자문하면서 회개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홍수 때에 물이 귀하다고 했던가요? 숫자로 1,200만 성도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홍수가 났을 때 진정 먹을 수 있는 물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다음 조그만한 「아이성」을 정복치 못하고 실패했던 것은 방심과 교만 그리고 불순종한 「아간」의 죄로인한 결과였다는 성경적 교훈은 이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매우크다고 할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속에, 나의 가정속에 그리고 나의 직장과 교회에 아니 이나라에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실것을 간구하고 항상 깨어 있기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겠습니다. 끝으로 춘천시 성시화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조남진 장로님과 조충환 목사님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시화를 위해 쉬지말고 기도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중에 두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18:19)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법찬 집사/성시화 평생회원)



지역교회탐방

제일장로교회 창립 60주년
및 장로장립 취임예배

박상호 목사(제일장로교회 담임)는 5월 7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원근 각처에서 오신 목회자들과 기관단체장, 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창립 60주년 감사예배와 장로장립 취임, 장립권사, 권사취임 예배를 드렸다.

취임장로 : 박동섭, 이순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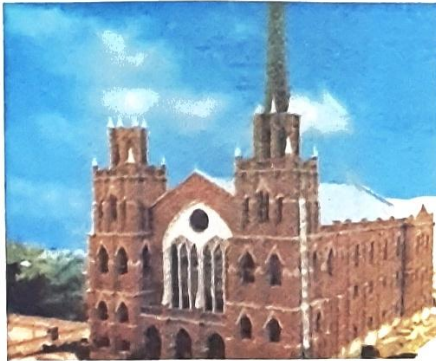
장립장로 : 전은풍, 심상우, 김향수

인수집사취임 : 최경용

장립집사 : 장병주, 김정호, 오용해

권사취임 : 장장자, 손문정, 최춘자, 이복동, 신경자, 김정자 성도이며 이창룡 장로는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1939년 5월 1일 교회창립을 결의하고 11명의 성



도들이 처음 예배를 드렸으며 동부장로교회의 시작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소양장로교회는 1946년 7월 둘로 나뉘어 제일교회(합동측)와 동부교회(통합측)라는 명칭의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되었으며, 낙원동 34번지에 50평의 새교회를 세웠다.



1993년 10월 30일 낙원동 46-5번지에 현재의 새 성전을 헌당하여 춘천지역의 초교파적인 예배장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립후 60년동안 10명의 목회자가 시무하였다.

동부장로교회
창립60주년 감사예배

임신영 목사(동부교회 담임)는 5월 5일 11시 본교회 예배당에서 타교회 목회자와 기관단체장, 전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교회창립 6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1939년 5월 7일 11명의 성도가 소양로 재중의원 박민식씨의 자택에서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동년 11월 예배장소를 소양로3가 24번지로 이전하였고 1945년 11월 춘천시 운곡동으로 예배장소를 이전하면서 소양장로교회란 명칭을 동부장로교회로 개칭하였다.

1955년 4월 5일 조양동 137-8번지에 벽돌조 예배



당을 건립하였으며 1975년 3월 본당 및 교육관을 증축하고 1989년 5월 12일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교회 건축헌당식을 가졌다. 현재 창립 60주년 기념교회



당을 건립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완공예정이다. 60년동안 8명의 목사가 시무하였으며 교인수 1,500여명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춘천순복음 만천성전 입당예배

5월 3~4일 기념부흥성회



김주환 목사

춘천순복음교회(김주환 목사)는 5월 2일 오후3시 춘천시 만천리에 제2성전인 만천벨벳성전을 마련하고 춘천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초교파 목사, 장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새성전은 만천리 산자락의 자연경관

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웠으며 넓게 펼쳐진 주차공간은 편리함을 더해주었다.

3,600평의 부지에 세워진 성전본당은 250평(1,200석)으로써 기존 창고시설의 기초위에 작은 예산을 들여 하나의 예술품을 만들어 냈다.

각 분야별로 개인 헌신자들이 물심양면으로 동참한 결과 부지 14억원을 포함하여 약 20억원이 소요되었다. 이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였다.

만천성전은 입당예배를 시작으로 초교파적인 모든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5월 3일부터 4일까지 임종달 목사(순복음 전주 백양교회, 정수기 도원장)를 강사로 모시고 참석한 성도들은 성령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5월 5일 오전10시 "사랑의 큰잔치"를

배설하고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 150여명을 초청 잘 대접하였으며 성전건축



을 위해 수고한 전 성도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그리고 만천성전의 초교파적인 첫 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99성령대축제"를 5월 22일오후 6시에 열기로 하고 "용기장인" 등 국내 유명 찬양팀을 초청하였으며 참석자 수송차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는 15개 찬양단체가 주관한다.

